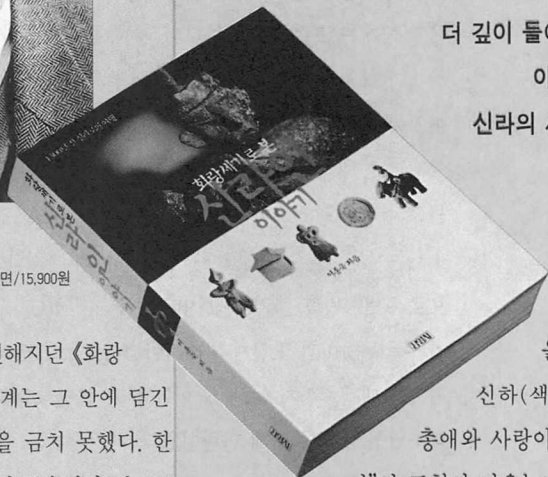




이종욱 교수

김영사/A5변형/528면/15,900원



또하나의 '신라' 증언하는 한 역사학자의 '이설'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펴낸 이종욱 교수

《화랑세기》에 나타난 성품속은 신라사회의 표피일 뿐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견고한 신분제 사회의 원형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이교수는 이 책에서 《화랑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쓰면서 신라의 사회상을 재구성했다. 또 《화랑세기》가 씌어진 역사적 배경, 《화랑세기》의 사료적, 학술적 의의도 밝히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화랑세기》 필사본이 발견됐다. 학계는 그 안에 담긴 신라 왕족의 생활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의 풍속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성생활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학계는 이 고문서에 '위작'이란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화랑세기》는 후대의 누군가가 작성한 '위조문서'쯤으로 여겨져 왔다. 적어도 《화랑세기》 필사본이 김대문이 쓴 원본이라고 주장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골품제의 운용원리 알려주는 사례 많아

“《화랑세기》는 7세기경 김대문이란 사람이 사다 함. 김유신, 김춘추 등 화랑의 풍월주 32인에 대해 기록한 전기입니다. 화랑의 출생, 혼인, 가족 관계, 왕위계승의 과정과 절차를 계보화해 놓은 것이죠. 난마처럼 얽힌 신라사회의 관계망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사료입니다.”

이종욱 교수(56, 서강대 사학과)가 펴낸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김영사)는 《화랑세기》에 기록된 신라인들의 모습이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화랑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쓰면서, 역사적 상상력과 직관을 가미해 당시 신라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이 책은 먼저 처첩관계, 사통관계, 삼서제, 어색, 색공제, 마복자(摩復子) 등 다양한 성품속을 망라해서 보여준다. 마복자는 하급자가 자신의 임신한 아내를 상급자에게 바쳐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또 《화랑세기》엔 “우리 집은 대대로 색

을 바치는 신하(색공지신)로 충애와 사랑이 지극하였 다”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왕이나 태자를 섬기는 '여자' 신하가 따로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교수는 신라를 '색'으로 혼미해진 사회로 보는 것은 편협한 태도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그런 혼잡한 성관계가 신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신라는 골품이란 '등급제'가 철두철미하게 통용된 계단식 사회입니다. 혈통의 존귀함과 비친함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특권과 제약이 부여됐죠. 《화랑세기》엔 그 골품제의 운용원리를 알려주는 여러 실례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엔 왕비를 배출하는 두 핏줄이 있었다. 대원신통과 진골정통이 그것이다. 이 두 계통은 '근친혼'을 통해 '피'의 순수성을 지켰다. 여자들은 성골이나 태자와 결혼해 왕족과 왕비가 됐다. 이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특별한' 여자를 배출하는 계통을 이만큼 완벽하게 유지했던 사회는 없었다고 말한다.

또 이교수는 신라사학계가 '성골'을 가상의 족보로 보는 견해에 반대한다. 학계에선 성골이 지증왕부터 진덕왕까지 7대를 이어져오다 없어졌고, 또 용어 자체도 당시에 실재했던 것이 아니라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기술할 때 편의를 위해 창작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성골이 김춘추가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엄존했다고 말한다. 성골은 왕과 일가친척으로 구성되고 성안에 거주했으며, 진골은 그 계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로 궁밖에 나가서 살았다는 것이다. 왕위 계승이 있을 때마다 성골과 진골은 다시 그 경계가 정해졌으며 명암이 갈렸다.

“《화랑세기》의 역사적 진실 주목해야”

“김대문이 《화랑세기》로 가문의 성품속을 낱알이 밝히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7세기 후반 신라 왕정이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를 국선으로 한 계급 강등시켰던 일이 계기가 됐죠. 김대문의 집안은 '진골'로, 역대 풍월주를 무수히 배출해왔는데, 단박에 일반 귀족으로 지위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김대문은 '피'의 지도를 그려서라도 가문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교수는 《화랑세기》에 담긴 역사적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족벌사회와 난혼은 세계사에서도 무수히 확인된다. 신라는 그 정도면에서 더욱 복잡하고 체계적이었을 뿐이다. 신라가 다른 부족들보다 국체를 빨리 이룬 점, 가야를 부용국으로 거느리고 백제, 왜국의 왕녀와 혼인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이유도 골품제가 사회의 근간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구실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교수는 주장한다. - 강성민 기자